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II — 추모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

김 영 삼*

요 약

세월호 침몰은 국가가 국민의 구조를 포기한 ‘사건’이었고, ‘사건’으로서 세월호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발전의 논리에 익숙한 주체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문학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슬픔의 정동을 재생산 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록했다. 문학적 형상화에 앞서 쏟아지는 언어의 정동을 작가들은 『눈먼 자들의 국가』로 보여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를 문학적 언어로 옮겨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문학적 글쓰기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문학이 사건에 대해 어떤 기능과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첫 번째 추모소설집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분석했고, 이 글은 후속연구로서 『숨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품들이 소환하는 ‘비-인간’의 형상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현희의 『광장에 지다』에 등장하는 ‘골렘’은 첫 번째 비인간의 형상이다. ‘골렘’은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단지 생물학적 신체로만 존재한다. ‘골렘’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먹는 입’만 남은 조에(zoe)로서의 생명체일 뿐이다. ‘골렘’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는 이미 이웃한 타자의 아픔에 무감각한 비-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수동적 주체로서 ‘무젤만’이 두 번째 비인간의 형상이다. 본고는 ‘무젤만’을 ‘침묵하는 입’으로 제시하며, 이들은 이웃한 타자의 아픔에 침묵한 대가로서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죄책감과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인간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존재들이다. 이평재의 『숨어버린 사람들』은 이러한 수동적 주체들의 비-인간적 형상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로하고 있다. '말하는 입'이 거세된 생물학적 신체인 '골렘'과 '침묵하는 입'만을 지닌 수동적 주체로서 '무젤만'들은 사회의 정상적 썸범에서 썸범의 대상으로 기입된다. 이들은 생명권력의 비정상성을 증명하면서 바깥으로 내몰리고 배제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예외가 상례화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인종주의적 차별과 절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종광의 『가금을 처분하라고?』는 신자유주의적 체제 내에서 누군가 소수자나 주변인으로 대상화되었을 때 해당 존재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세월호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농후하다는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국가권력은 '먹는 입'에 대한 '말하는 입'의 우위라는 위계를 결정하면서 탄생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는 '먹는 입'을 추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먹는 입'으로 탄생시켰다.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이웃한 타자의 슬픔에 무감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주체들을 만든다. 이 소설집에서 먹는 기계가 된 '골렘', 또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무젤만', 그리고 결국 절멸의 길로 들어서는 비-인간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세월호 사건 이후 문학은 우리가 자칫 비-인간과 절멸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기도 하지만, 같이 음식을 '먹는 입'으로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얼굴과 정서와 이야기를 뚜렷하게 새겨 놓으면서, 문학은 우리가 비-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통로를 막아서고 있다.

주제어: 세월호, 사건, 비-인간, 골렘, 무젤만, 생명정치, 말하는 입, 먹는 입, 『숨어버린 사람들』, 이야기

목차

1. 들어가며 : 세월호 이후의 기록들
2. 먹는 입과 말하는 입, 콜렘
3. 같이 음식을 ‘먹는 입’, 가족
4. 침묵하는 입과 수동적 비인간, 무겔만
5. 인종주의적 절멸에 대한 알레고리
6. 나가며 : 문학이 막아선 길목

1. 들어가며 : 세월호 이후의 기록들

2014년 4월 16일 ‘맹수처럼 거칠고 빠른 물살’의 수면 아래로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국가에 대한 믿음과 적자생존의 논리를 유일한 삶의 논리로 기입했던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윤리¹⁾ 또한 함께 ‘가라앉았다.’ 이 자기 생존적인 경제적 논리의 침몰은 주체들의 미안함이라는 감정에서 기인한다.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애도의 공동체²⁾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을 동일시했던 신자유주의적 이기적 윤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미안함’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이후 4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이 미안함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후 이것이 어떻게 잔존하면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왔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물음에 대한 응답 또한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³⁾

1) 김종건,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 2014, 76면.
 2)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85면.

이 집단적 작업들은 ‘국가’라는 표상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망각적 주체로 기능하는 개인들의 윤리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미안함의 주체를 추궁해왔다. 공통적으로 세월호는 주체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문학적 사건으로 기입되기 전 몇몇 작가들과 비평가들은 ‘눈 먼 자들’에 의한 국가의 참담함을 서둘러 제출하기도 했다.⁴⁾ 여기에서 박민규는 왜 세월호가 사건일 수밖에 없는지를 진단했고,⁵⁾ 김애란은 언어로 포착 불가능한 슬픔의 정동을 아프게 전달했다.⁶⁾

‘4·16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은 생존학생들과 유가족들의 증언과 슬픔을 구술로 기록하고 남겼다.⁷⁾ 김현미의 『애도의 저자들, 준엄한 기록들』⁸⁾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대상으로 유가족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질문

- 3) 세월호에 대한 사회학과 철학 등의 인문학적 연구들이 집단적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공동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2016.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이병천·박기동·박태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인디고서원, 『새로운 세대의 탄생』, 궁리출판, 201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김교빈 외, 이파르, 2015.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 4) 김애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 5)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앞의 책, 56면.
- 6) “안산에서 이제는 말 몇 개가 아닌 문법 자체가 파괴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 뜻이 일치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걸, 기의와 기표의 약속이 무참히 깨지는 걸 보았다”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앞의 책, 14면.
- 7) 4·16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작과비평, 2015.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작과비평사, 2016.
- 8) 김현미, 『애도의 저자들, 준엄한 기록들』, 『여/성이론』 32, 도서출판 여이연, 2015.

해주었고, 최강민⁹⁾은 두 권의 구술 글쓰기와 한 권의 생일시 기록을 대상으로 글쓰기의 치유적 관점에서 ‘구조된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수전 손택은 문학이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의 문제 아닌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 주고, 발휘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¹⁰⁾라고 말한다. 구술적 글쓰기와 생일시 등은 이런 문학의 공감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시인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에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통해 아픔에 공감했고, 이후에도 이들의 공동작업은 지속적이다.¹¹⁾ 사건에 대한 재현이 항상 뒤늦었던 소설의 반응도 과거보다는 재빠르게 제출되었다.¹²⁾ 이를 대상으로 한 비평으로 신선별¹³⁾은 김애란과 김영하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부모-되기의 윤리적 자세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김형중¹⁴⁾과 이광호¹⁵⁾로 이어지는 『

-
- 9) 최강민,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어문론집』71, 중앙어문학회, 2017.9. 이 논문은 구술 글쓰기인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다시 봄이 올 거예요』와 생일시 모음인 『엄마, 나야』(곽수인 외, 난다, 2015)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글들은 모두 작가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아 쓴 공동작품들이다.
- 10) 수전 손택, 『문학은 자유이다』,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2004, 208면.
- 11) 강은교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 2014.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꽃으로 돌아오라-세월호 3주기 추모 시집』, 푸른사상, 2017.
- 12) 출판사 예약에서 기획으로 펴낸 두 권의 추모소설집을 외에 문단의 현장에서 생산되는 작품들의 목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애란, 『입동』, 『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박민규, 『대면』, 『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 최은영, 『미카엘라』, 『실천문학』, 2014년 겨울호. 정용준, 『6년』, 『현대문학』, 2014년 10월호. 김영하, 『아이를 찾습니다』, 『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 황정은, 『웃는 남자』, 『창작과비평』, 2016년 겨울호. 김애란,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7. 박사랑, 『스크류바』, 창작과비평, 2017. 손원평, 『아몬드』, 창작과비평, 2017.
- 13) 신선별, 『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 『창작과비평』 168호, 창작과비평사, 2015.
- 14)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 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사회』 2014년 가을호.
- 15)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 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

문학과 사회』의 기획은 사건에 대한 문학적 증언의 자세에 대한 숙고를 요구했다.

작가들의 집단적 기획으로 출판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¹⁶⁾는 소설이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의 어려움을 보여줌과 동시에 문학이 재현 너머의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⁷⁾ 선행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사건을 목도한 자들의 ‘주체-돌아보기’를 촉발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부모 주체들의 우울은 사건의 아픔을 재생산했고, 경제논리에 포획된 생명정치적 환경에서 부모-되기의 어려움이 표현되었다. 이는 다시 공감하는 주체들의 순환적인 엄마-되기를 통해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집에 실린 대다수의 서사에서 시민 주체들의 망각은 아픔의 정동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더불어 몇몇의 작품들이 소환하는 죽은 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 지속적인 참사를 양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은 사건 이후 이러한 현상들을 일차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망각과 기억의 모순적 관계를 표현했다. 이때 문학은 사건에 대해 재현이나 증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문학은 살아남은 자들의 ‘주체-돌아보기’라는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참사’와 ‘희생자’라는 표지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세월호 침몰의 충격과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종결되지 않은 애도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여 기의 소설들은 사건의 진실에 주목했고, 자연스럽게 현실과 작품이

』, 2014년 겨울호.

- 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15인 공동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심상대 외, 예음, 2015.
- 17) 본 연구자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의 문학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6집, 감성연구, 2018.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형상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9월에 출간된 두 번째 추모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¹⁸⁾에는 첫 작업과 사뭇 다른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소설들이 다루는 사건은 세월호로 직접 형상화되기보다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모종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간의 관계와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양상으로 소설집에는 ‘비-인간’적 형상으로 표현되는 존재들이 빈번하다. 말과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골렘’, 인간들의 기억을 제거하는 ‘흡혈 사마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버린 애완견, 축지법을 익혀 인간의 능력 한계를 벗어난 존재, 진실의 증언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인간임을 포기한 인물, 세월호에서 죽어간 연약한 생명들을 연상하게 하는 가금류 등 인간의 형체를 지니고 있거나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살고 있으나 인간성이 거세된 존재들을 본 연구에서는 ‘비-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나 아렌트는 한 인종의 절멸 정책에 가담한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아이히만이 인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세 가지 원인으로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무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그 존재는 비-인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의 이면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고, 이웃한 타자들의 고통에 눈 감으면서 망각의 논리에 순응했던 세월

18) 세월호추모문학 12인공동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음, 2017. 이 작품집에는 총 12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이 중 이평재의 『숨어버린 사람들』, 김종광의 『가금을 처분하라고?』, 방현희의 『광장에 지다』, 최지애의 『달용이의 외출』, 정남일의 『소연의 시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 작가, 작품명, 면수 표기. 본문 인용의 경우 맥락에 따라 면수만 표기.

호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아렌트가 국가가 요구하는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시체들의 복종’(Kadavergehorsam)이라고 명명했을 때, 이 시체들이 곧 비-인간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는 사건의 진실을 독점 생산하면서 시민들에게 침묵과 순응을 요구했다. 이는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시체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표현으로 진실을 ‘말하는 입’의 거세를 수행한 것이다.

아감벤에 의하면 근대 정치는 정치적 생명으로서의 비오스(bios)와 생물학적 생명으로서의 조에(zoe)를 분할하려는 기획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인간은 정치적 생명이면서 생물학적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은 ‘말하는 입’과 ‘먹는 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이 두 가지 입은 분할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근대 국가의 권력은 정치적 신체인 ‘말하는 입’을 독점하고, 시민들에게 생물학적 신체인 ‘먹는 입’만을 요구하려 한다. 이 불가능한 기획의 시도가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에 기입되었고, 『숨어버린 사람들』의 몇몇 작품들은 이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이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문학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숨어버린 사람들』에 기록된 근대 정치철학의 잘못된 기획을 비-인간적 형상들을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사건 이후 구조된 자 또는 남겨진 자들에게 이런 불가능한 정치적 기획이 폭력적으로 기입될 때,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극단적으로는 절멸의 기획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해당 작품들을 통해서 밝히려 한다.

2. 먹는 입과 말하는 입, 골렘

신체와 숨이 부여된 생명체가 모두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건에 응대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체는 인간과 비-인간의 갈림길에 선다.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거나 배제하면 존재는 잠재적 비-인간의 유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이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서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관습화된 감정과 행위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니체는 이렇게 “철갑을 두른 가짜 얼굴”을 지닌 존재들을 마지막 인간(der letzte Mensch), 즉 말종(末種)이라고 불렀다.¹⁹⁾ 때문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비-인간으로 전락하지 않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현희의 『광장에 지다』에 등장하는 ‘골렘’이라는 존재는 타자의 생명체에 잠재된 정서를 감지하지 못하는 비-인간적 형상으로 본고가 제시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골렘은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다.²⁰⁾ ‘말 없는 입’을 지닌 골렘은 비능동적인 생명체로서, 자신의 행위와 미래의 일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자신을 만든 ‘아버지’(대기업인 S기업에 시계를 납품하는 하청 공장의 공장주)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애초부터 골렘은 ‘법-권리’가 없고 단지 ‘몸-생명’만을

19) 노명우, 『역사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의 목시』,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17-18면.

20) 신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신의 형상을 본떠 형태를 만들었으나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본떠 흙으로 골렘을 빚었기 때문에 골렘은 말을 하지 못한다. 신 이외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악마를 제외하고, 즉, 골렘을 만든 것은 악마의 소행이다. (작가의 설명) 방현희, 『광장에 지다』, 96면.

지닌 존재에 가깝다. 즉 정치적 생명이 지녀야 할 법적 권리가 애초부터 부여되지 않은 발가벗은 생명으로서의 조에(zoe)와도 같다.²¹⁾

‘아버지’가 골렘에게 내린 첫 명령은 시계를 조립하는 일이었다. 골렘은 “남들처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시계를 조립”하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계를 완성한다. 공장의 매출은 급속히 상승했고, 공장주인 ‘아버지’는 공원들에게 “모두들 저 애를 따라 똑같은 속도로 조립을 해. 하루 한 개를 완성하지 못하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규칙을 제시했다. ‘아버지’에게 골렘은 효율적 생산 기계이며 동시에 여타의 인간(공원들)을 비-인간으로 조직하기 위한 도구였다. ‘아버지’는 공원들에게 세 시간에 한 번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 그중 골렘은 “정확성과 빠르기에서 스물네 명의 공원들 중 가장 뛰어났다.”(이상 98면)

공장이 구축한 효율적 생산 시스템과 그 내부 구성으로서의 공원들은 각각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와 그러한 생명정치에 포섭된 우리 사회 개인들의 삶으로 대응된다. 그러나 공장주인 ‘아버지’가 생명정치적 권력의 정점은 아니다. 그 또한 S기업 제품을 대리 생산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하청을 받기 위해 그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의 가족들을 경제적 합리성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한다.²²⁾ S기업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을 공격하는 것이 S기업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동물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죽게 하고 살게 내버려두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규율권력과 달리

21) 정치적 생명과 생물학적 생명의 구별, 이를 분할하려는 근대정치의 불가능한 기획에 대한 개념으로,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9면.

22) 세월호에 타고 있던 생명체들은 탑승객, 실종자, 사망자라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구겨 놓여지면서 생명체로서의 구체적인 얼굴은 지워진다. 그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 이윤 동기와 통치의 대상이라는 기호가 대신 등장한다. 노명우, 앞의 책, 29면.

특정 행위를 강제하지 않아도 개별 주체들이 권력의 작동 방식을 대리수행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행위에는 생명정치가 작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악의 평범성'이 내재하고 있다.

'아버지'가 콜렘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단식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정치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입하기 위해 경쟁하던 공간 투쟁의 장소였다. 이곳에서 콜렘은 명령에 따라 음식을 먹었다. 그는 오직 '먹는 입'으로서의 존재였다.²³⁾

아버지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불과 몇 걸음 앞 하얀 천막 아래 볼이 움푹 파이고 수염이 온 얼굴을 뒤덮은, 눈 맑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십이 일어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 같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결기로 빛이 났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십 미터 앞에 앉아 피자 박스를 열고 아구아구 피자를 먹었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소리를 쳤으며 사진을 찍어댔다. 나는 콜라도 없이 피자를 먹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눈 맑은 남자와 세 번이나 눈이 마주쳤다. 그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나는 그와 영점 이 초 이상 눈을 맞추지는 않았다. 피자를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했다. 버려지 같은 자식, 겁나게 처먹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굶기더냐. 아버지는 공원들 중에 피자를 세 판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피자를 세 판이나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다. 먹으라 하면 먹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잠들어라 하면 잠들 수 있는 나, 콜렘. (방현희, 『광장에 지다』, 101면. 강조 인용자.)

소설의 '나'가 인간이 아니라 '콜렘'인 이유는 명확하다. '나'는 이 옷한 타자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을 읽어내지 못하고, 생명체에 잠재

23)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 과정을 사례로』, 이재열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2017, 252면.

된 인간의 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맹(盲)’²⁴⁾이다. 자식의 죽음을 두고 먹는 행위를 정지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눈 맑은 사람’ 앞에서, ‘나’는 먹는 행위를 기계처럼 수행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무화시키고 있다. 아버지가 시킨 명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 사람이 사십 이 일이나 음식을 먹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골렘’인 것이다. 피부와 따뜻한 피와 근육과 말캉한 살을 가졌음에도²⁵⁾ ‘나’가 인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소설은 이 극단적 대치의 장면에서 극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이를 들뢰즈와 가타리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기관 없는 신체’의 비극이다.²⁶⁾ 인간에게는 ‘먹는 입’과 ‘말하는 입’이라는 두 개의 입이 있다. 인간은 말하면서 먹는 존재로서 이 둘 중 어느 한 쪽으로도 편향될 수 없다. ‘먹는 입’만 남은 존재는 법적 권리가 박탈된 존재로서 생물학적 생명만이 부여된 조에(zoe)일 뿐이며, ‘말하는 입’은 법적 권리만이 강조되는 정치적 생명체로서의 비오스(bios)에 대응한다. ‘말하는 입’과 ‘먹는 입’이 지닌 두 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분할하려는 불가능하면서도 반복된 시도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폴리스’이자 ‘주권자’이다. 도시 국가의 성립과 함께 정치는 인간을 폴리스 바깥의 존재와 폴리스 안의 존재로 나누려 했다. 이는 각각 ‘먹는 입’과 ‘말하는 입’으로 치환가능하다.²⁷⁾ 정치로

24) 아버샤이 마갈릿, 『품위있는 사회』, 신성림 옮김, 동녘, 2008, 110면.

25)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 나는 말을 못하는 골렘이다. 나는 생각을 못한다. 골렘은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피부를 가졌고, 따뜻한 피를 가졌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도 가졌으며 말캉한 살도 가졌다.” 방현희, 『광장에 지다』, 109면.

26) 슬라보예 지젝, 『신체 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06, 66-67면.

27) 본 논문이 쓰는 ‘먹는 입’과 ‘말하는 입’에 대한 의미는 김향의 글에서 차용해서 확장한 것임을 밝혀 둔다. 김향,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23-42면.

부터 '먹는 입'을 배제함으로써 폴리스는 성립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했다.²⁸⁾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국가권력이 개인들의 '말하는 입'을 막은 채 '먹는 입'만을 강조할 때 이 사회는 '기관 없는 신체'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기관이 사라진 채 국민들은 해체된 신체의 각 부분들로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과편화되고 버려지는 것이다.²⁹⁾ 들뢰즈와 가타리가 부분과 부분들, 즉 개인과 개인들이 내재적인 자기 역량을 지닌 채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는 것에서 미래 사회의 가능성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역량에 기초할 때 '신체'는 '기관'들의 필연적 연관성에 머물지 않고 감성적 실천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광화문 광장의 '눈 맑은 남자'의 단식은 '먹는 입'만으로 신체를 규정하려는 국가권력(기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에 담긴 생명 유지의 기능을 일시 정지하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등장시키고, 스스로를 정치적 신체로 사회에 재기입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 정치적 주체로서 '눈 맑은 남자'가 "슬픈

28) 이와 유사한 논리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대입할 수 있다. 나치즘은 순수하고 고귀한 혈통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지닌 아리안 족을 정치의 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들은 강제수용소에서 특정 혈통과 특정 신체들을 절멸시켰다. 이번 장에서 '먹는 입'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경제학적 논리로 세월호 유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공명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어지는 작품 분석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인종주의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기입되고 있음을 밝히려 고 한다.

29) 『광장에 지다』에서는 기관(S기업)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신체)의 분노와 실패가 '기관 없는 신체'의 비극적 미래를 증명한다. "아버지는 주먹 권 손을 다른 손 바닥에 대고 쿵쿵 쳤다. 그러더니 나를 가까이 오도록 손짓을 했다. 나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직원들을 반도 더 내보냈다. 이제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해. 작업 시간이 좀 늘어날 게다. 아직 너는 젊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내가 너를 광장에 내보내고, 다른 멍청이들을 불러서 피자며 치킨이며 실컷 처먹게 해줬는데, 이렇게 물을 먹여. 두고 보라지.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방현희, 『광장에 지다』, 115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시선에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주체가 비-인간³⁰⁾으로서의 ‘골렘’에게 보내는 연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먹는 입’의 야수성만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그의 시선이과 세 번이나 마주쳤을 때 “나는 그와 영점 이 초 이상 눈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때 ‘골렘’인 ‘나’가 순간적으로 감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중요하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골렘’이 세월호의 분향소에 들어가는 장면, ‘골렘’과 소통하려는 ‘소녀’의 존재, 그리고 ‘골렘’이 ‘아버지가 만든 규칙을 어기는 몇몇 장면들을 통해 ‘골렘’이 비인간에서 벗어나 이웃한 타자들과 공감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나 아렌트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사유할 수 있는 능력, 타자에 대한 감수성의 능력 배양을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동지침으로 제시한다. ‘골렘’이 인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3. 같이 음식을 ‘먹는 입’, 가족

‘골렘’은 사유 불능과 언어 불능적 존재로서 오직 ‘먹는 입’만으로 기능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여기서 ‘먹는 입’은 존재를 생물학적 신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먹는 입’이 언제나 부정적 수행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생명체로서 기능하기 이전에 인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먹는 입’과 같은 생물학적 신체활동을 공유하는 존재들이었다.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존재

30) “나는 골렘, 이름은 야. 또는 저애. 또는 그 애.”(102면), 또는 “나는 골렘, 내게는 이름이 없다.” (103면)는 진술은 ‘나’가 지닌 비-인간의 성격을 드러낸다. 또한 동시에 소설 중에 등장하는 소녀(세월호의 살아남은 자 중 한 명으로 보이는 학생)가 골렘의 이름을 묻고, 골렘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방식은 '먹는 입'의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런 의미가 제거된 상태의 '먹는 입'이 지닌 꺾임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비-인간의 두 번째 형상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장에서는 가족과 '먹는 입'의 본래적 의미를 잠시 경유하려 한다.

최지애의 『달용이의 외출』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죽음을 경험한 슬픔의 정동 또한 너무 가까워 오히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남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애완견 '달용이'의 부재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들 가족은 '달용이'를 포함해 다섯이다. 어머니의 사랑에 의하면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몇 안 되는 배달맨”이지만, 사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바쁠 수밖에 없”(이상 288면)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자식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족의 “기념사진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다.”(289면) 엄마는 가난과 빛과 노동을 대물림 받아 밤 시간에도 할인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한다. “엄마 아빠처럼 아등바등 바쁘게 살지 않”(289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장남인 형은 열심히 공부하느라 한 살 아래 동생인 '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달용이'는 '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입양했다. 동물 병원 창가 구석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연신 꼬리를 흔들며대던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그저 멍하니 눈만 꺾꺾거리던” 어딘가 “참 많이 안쓰러운 인상”(286면)의 애완견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랬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형은 형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느라 바빴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밥 한 끼 같이 할 여유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를 물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정신없고 개념없고 자신이 사람인 줄 아는 달용이만이 각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과 말도 안 되는 재롱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296면.)

모두들 자기만의 일상을 사느라 바빴던 그 무관심의 시절에 ‘달용이’만이 가족을 웃게 하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런 ‘달용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달용이’의 실질적 보호자로서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달용이’를 찾지만 행방을 알 수 없고,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당황해한다.³¹⁾ 그러나 ‘달용이’의 행방을 추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어디로 왜 나갔는지, 현재 어디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바깥’으로 나가버린 세월호의 아이들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나의 형 또한 3년 전 세월호와 함께 영원히 ‘외출’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울어?’와 ‘어떻게 웃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303면)했다. 어떤 방식으로 한 명의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고 어떻게 애도를 종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로 읽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형의 ‘외출’을 설명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소설은 ‘달용이’의 외출에 대해서도 어떤 추리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다. 그들의 부재를 설명할 논리가 없다. 생각해보면 ‘달용이’가 가출을 한 건지 외출을 한 건지도 정확하지 않다. 어쩌면 ‘달용이’는 잠시 외출을 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아직 미수습된 형의 친구들처럼, 그저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즉 이들 가족은 아직 형의 죽음을 의미화하지 못한

31) “어쩌면 형의 사고를 알릴 때보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보다, 내가 결국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보다도 달용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더 당황해하고 있었다”(284면)는 진술은 달용이의 실종이 형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였다.³²⁾

자식을 잃은 참척(慘戚)의 사건 이후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의 드러냄으로 인식되면서 죄스러움을 수반한다. 그래서 먹는 행위는 다만 생명체로서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불과할 뿐, 그것이 어떤 행위로서 의미를 띠지 못했다. 다만 '먹는 입'으로서의 생물학적 신체의 비루함을 자각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달용이의 외출』에서는 가족들은 따로 끼니를 해결할 뿐이었다. 더불어 양진체의 『마중』도 슬픔과 음식이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엄마는 웃다가도 울다가도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렸다. 나와 아버지는 각자의 식사 시간에 그것을 먹었다.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식사 시간을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혼자 밥을 먹는 가족의 곁을 유일하게 지켰던 게 달용이었다.”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299면)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어. 무언가를 먹었다가도 토하는 일을 반복했지.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앉을 때마다, 푸르고 고요하던 새벽의 병원 복도가 떠올랐어. 먹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살이 급격하게 빠졌고, 몽롱해졌어. 그와 관련된 물건들이 집 안 곳곳에 있었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무너졌지. (양진체, 『마중』, 185면)

그러나 위의 인용문들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잠정적일지언정 가족 간의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다음의 장면들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 화해의 순간에 빈번

32) “도무지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형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또 어떻게 추모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렸다는 말보다는 어려웠다는 말이 더 합당한 변명이었을 것이다.”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298면.

하게 등장하는 것이 또한 음식이다.

달용이를 찾느라 저녁 시간을 놓친 아버지와 엄마와 나는 동네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우동을 먹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튀김을 건져 내가 먹던 우동 그릇에 올려주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한 가족 외식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이 나이 많은 측은한 남자가 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303면)

집 안에 들어서자 나물 볶는 냄새가 가득했다. …(중략)…

- 잘 왔다. 아버지를 용서해줄래. …(중략)…

-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중략)…

우리 네 식구는 새해 첫날 떡국을 함께 먹었다. 떡국을 먹는 동안 누구 하나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먹는 일에만 열중했다. 아버지는 상 앞에 놓인 전을 내 앞으로 옮겨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떡국을 먹었다. 낯선 모습의 아버지였지만 싫지는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게 그리 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늘 술을 마셔도 화목하게 가족의 수문장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내가 꿈꾸던 그림이기도 했다. (손현주, 『스무 살』, 228-229면)

‘음식의 관계학’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공통의 음식을 놓고 서로가 목구멍을 드러내고 신체를 무방비하게 노출하면서 손가락을 부딪는 집단 행위야말로 밥상에 둘러앉은 이들이 다른 이와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진체의 『스무 살』에서 아버지는 심리치료를 통해 아들에게 사과와 사과를 건네면서 함께 떡국을 먹고, 지난 3년 간 서로의 식사 장면을 피해주면서 무관심의 미덕을 보여주었던 ‘달용이’네의 남은 세 가족도 아주 오랜만에 밥상에 둘러앉았다. 자신만의 슬픔과 삶에 매몰되어 정작 바로 이웃한 가족의 슬픔을 돌보지 못했던 주체들이 음식을 먹는 가장 원초적이고 적나

라한 행위를 공유함으로써 경계의 문턱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서로의 '먹는 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곧 '식구'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준비를 마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소설은 '달용이'라는 한 가족 구성원의 '외출'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다.

“살아 있었다면 형은 스물한 살이 되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친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충분히 슬펐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화가 났다. 막연한 적의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형에 관한 기억 말곤 한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는 엄마의 슬픔을 알았고, 일상을 포기할 만큼 아프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아버지의 자학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있는 힘껏 버텨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족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다.”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304면.)

이제야 슬픔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날 형이 남긴 마지막 말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 날, 계단을 내려가던 형은 “내일 모레 온다, 야구장이나 한번 가자”(310면)고 했다. 야구장은 이들 형제와 아버지가 유일하게 같이 외출한 장소였다. 때문에 형의 이 말은 소원했던 형제의 관계 복원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개(달용이)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비슷한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서 잠들고 부엌에 어슬렁거리면서 마치 '달용이'와 닮아가는 '아버지'를 측은하게 바라보게 된다.³³⁾ 정리하자면, 앞서 살펴본 『광장에 지다

33) “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 새 텔레비전 리모콘을 사와야겠다고. 아버지가 형처럼 달용이처럼 외출해버려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봐 겁이 난 까닭이었다.” (311)

』의 ‘골렘’의 ‘먹는 입’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의 생물학적 신체의 미천함을 의미했다면, 『달용이의 외출』에서의 ‘먹는 입’은 서로의 아픔에 무심했던 주체들의 ‘서로 돌봄’을 촉발하면서 인간관계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결정적 차이는 능동성에 있다. 전자는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 비인간의 활동이었지만, 후자는 서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촉발한 능동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슬픔의 공동체를 형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대문자 명사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다. 모든 참사들의 맨 앞자리에는 언제나 가족들의 통곡과 눈물이 자리했다.³⁴⁾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보아야 할 점은 참척(慘戚)의 슬픔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내재한 ‘가족’에 대한 고집과 편견이다. ‘정상가족’에 대한 고집과 결핍된 구성에 대한 편견은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적 인식을 만들어 낸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화문 광장에서 40여일 넘게 단식을 했던 김영오 씨에 대한 루머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아버로서의 자격을 시험했던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³⁵⁾ 이런 경우를 볼 때 한국 사회는 이웃한 타자의 아픔을 포용하기 전에 그들의 슬픔을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별지으려 했다는 점에서 폭력적이었다. 이러한 구별짓기가 만들어내는 폭력은

3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주체들의 우울과 관리되는 죽음’이라는 항목으로 살펴본 바 있다. 내몰린 존재로서의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돌봄 시스템의 부재가 엄마-되기의 자격을 시험하고 있으며, 문학이 부모-주체들이 겪는 우울의 정체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35) 이현정은 한국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남녀의 생물학적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더불어 유민 아빠인 김영오 씨에게 요구되었던 ‘아빠의 자격 증명하기’와 세월호 유가족 중 다문화가정, 이혼가정 또는 조손가정 등을 배제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현정, 『인간성, 가족, 그리고 기억하는 행위에 관하여』,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타자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인종주의적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³⁶⁾

가족들의 형태가 불완전하거나 소통부재의 현상을 겪는 것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정상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상과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실제로 세월호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등이 많았다.³⁷⁾ 대한민국 사회가 지닌 정상가족에 대한 환상이 가족구성원의 결핍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정상적 가족을 만들지 못한 부모들을 일종의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수록된 여러 편의 작품들에서도 한부모가정은 빈번한 소재였고, 경제적 결핍을 피하기 위해 밤시간에도 노동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의 돌봄에도 무능력한 대상이 됨으로써, 모종의 사건 이후 부모들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야 했다. 일종의 부모 되기의 자격을 스스로 시험하게 한 격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정상가족 이외의 형태를 차별하는 인종주의적 배제의 시선이 깔려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4. 침묵하는 입과 수동적 비인간, 무젤만

이웃한 타자의 고통과 사고에 대한 무관심, 침묵하는 주체들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서사로 정남일의 『소연의 시간』을 언급할 수 있다. 소설은 '소연'이라는 여성 화자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알레고리아자 유쾌한 비틀기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살균기 가습제, 선박 안전, 메르스 사태 등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들은 '소연'에게 자

36) 이런 사고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V장에서 살펴보고 한다.

37) 이현정, 『인간성, 가족, 그리고 기억하는 행위에 관하여』, 앞의 책, 120면.

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가혹한 교훈만을 남겼다. 그래서 그녀는 ‘경공술’은 연마했다고 한다.³⁸⁾ 무협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이 ‘경공술’이라는 언어가 생경하게 느껴질수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의 비정상성이 강조된다. 비정상적 상황이 일상화되고, 예외가 상례가 되는 예외상태의 논리는 세월호를 비껴가지 않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누구로부터도 구원되지 않았다. 그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갈 때에도, 뱃머리가 점점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에도, 팽목항의 수많은 눈들이 이 비극적인 침몰을 목격하던 그 순간에도 그들을 건져내는 손길은 없었다. 마치 ‘소연’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시간 동안, ‘나’가 야바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무관심했거나 무책임했다. 그것이 ‘소연’이 ‘나’와 헤어지려는 이유이면서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공술을 연마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들에게 “내 밥그릇은 스스로 지키자”(317면)라는 냉혹한 처세술을 습득하게 했다. 그런 덕분에 ‘소연’은 교통 사고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자동차에서 무사히 빠져나갔는지도 모른다. 예의 그 경공술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경공술을 어떻게 연마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의 불가능성만큼 우리 사회의 주체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의 불가능성만큼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소연의 시간’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이 만들어 낸 시간이다. 더불어 이 소설의 형식은 ‘소연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재연함으로써 고통의 체험과 순환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 소설은 사고 직후 깨어난 ‘나’의 독백에서 시작해서 ‘소연’과의 과거를 회상한 후 다시 사고 장면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

38) “이제 알겠지? 내가 경공술을 아무 때나 안 쓰는 이유를.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정남일, 『소연의 시간』, 336면.

어있다. 이 서술의 시간은 '나'에게 죽음이라는 공포와 구조라는 희망 사이를 오가는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과거 '소연'이 엘리베이터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과도 같다. 이쯤에서 작가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소연이 경험했던 죽음과 외로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그때 우리는 스스로 그 죽음의 늪을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는 냉혹한 사실을 작가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민-주체들의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욕망이 타자의 슬픔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의 무관심이라는 윤리적 주제를 훨씬 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지점까지 몰고 간 작품으로 이평재의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다.³⁹⁾ 무엇보다 이 소설에는 진실의 증언을 외면한 채 스스로를 비-인간의 영역으로 전락시킨 인물이 등장한다. 국가 권력이 오로지 '먹는 입'만으로 존재하는 '골렘'과 같은 존재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세월호의 가라앉은 자와 살아남은 자들에게 명목상의 법률적인 권리만을 부여하면서, 그들 스스로 최소한의 보상에 만족하거나 또는 모종의 불이익으로부터 배제되는 혜택에 만족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살아남은 자의 증언과 비판이 어떠한 법-권리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폭력적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오직 살아남은 자로서의 최소한의 법-권리만을 수동적으로 지킬 것을 종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여기에 순응하는 존재는 비-인간의 유예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본고가 제시하는 두 번째 비-인간의 형상으로서 이 존재의 이름이 바로 '무젤만(der Muselman)'⁴⁰⁾이다. 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39) 수동적 주체들의 침묵과 경제 논리에 복종한 주체들의 윤리에 대해 이평재 작가는 일관되게 가혹한 서사로 응대한다. 첫 번째 추모소설집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에 수록된 『위험한 아이의 인사법』에서도 이평재 작가는 '괴물이 되어버린 세월호의 아이'의 복수를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묘사함으로써 망각이 불러오는 파괴를 표현한 바 있다.

에서 곧 가스실로 들어가기 직전의 ‘움직이는 시체’이자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 살아있는 시체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에는 반응하되 타자의 상황에는 무관심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생물학적 생명의 존재로만 남은 유기체의 꾸러미로서 ‘기관 없는 신체’의 대표적 표상이다. 물론 ‘무젤만’은 제노사이드의 직접적 피폭대상으로서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버렸다는 점에서 증언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⁴¹⁾ ‘무젤만’은 증언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간극을 성찰하고, 또 과연 무엇이 인간을 단지 살아있는 유기체 덩어리에 불과하게 만들었는지를 정치학적으로 통찰하게 한다. 이로써 ‘무젤만’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생물학적 통제 대상으로 보는 생명정치가 바로 권력의 본질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무젤만의 존재는 증언 불가능성의 문턱 너머에 있는 말 없는 존재들만이 아니다. ‘증언할 수 없는 자’로서의 무젤만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문학의 재현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만 이용

40)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문서고와 증언』,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61면. 수용소의 은어로서 무젤만은 이슬람교도를 뜻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들을 모아보아도 이 말의 의미와 시작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젤만은 수용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앞둔 살아있는 시체로서 무기력, 무능력, 비인간성의 표상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젤만은 모든 수용소 사람들의 예견된 미래였다. 아감벤은 이들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으로 결국 죽은 자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는 것, 증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증언의 공백’으로 지칭하고 있다.

41) 무젤만이 인용되는 일반적 의미로서, “무젤만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동시에 비인간이다. 그런데 무젤만은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증언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비인간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생존자이고, 이때 생존자는 비인간의 대리인, 비인간에게 목소리를 빌려주는 자이다. 증언은 말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말하는 자이다. 증언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것이며, 침묵하는 자와 말하는 자,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이 불가능한 지대이다. 무젤만은 인간과 비인간, 말할 수 없음과 증언의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광호, 앞의 책, 89-90면.

될 뿐이다. 본 논문은 증언 불가능의 형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증언을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한 주체들이 놓이게 되는 비인간의 형상으로까지 이 용어를 확대 적용하려 한다. 침묵이라는 윤리적 파괴가 이후 주체의 삶을 인간과 비인간의 문턱으로 몰고감으로써, 예외상태의 비정상성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고 별거벗은 생명으로의 삶만을 선택한 존재들, 이른바 '침묵하는 입'으로서의 이들은 이웃한 타자의 아픔에 침묵한 대가로서 죄책감과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인간의 문턱으로 끌고 간다. 그들은 "움직이는 문턱, 즉 인간이 비인간으로 넘어가고 임상적 진단이 인간학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문턱"⁴²⁾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이평재의 『숨어버린 사람들』은 이러한 수동적 주체들의 비-인간적 형상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로한다. '경수'와 친구 '오'는 다이버였다. 아내인 '나'를 만난 것도 바닷물 속이었다. 프리 다이버들에게 꿈의 대회인 '딥씨(Deep See) 챌린지대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던 도중 304명의 승객들이 물에 잠겨가는 모습을 보고 '경수'와 '오'는 구조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날 밤 '오'는 경찰서에 끌려가기 전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지금 이곳에는 몇 시간째 아무런 구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민간과 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구조를 펼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경이 오히려 잠수부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나 '오'의 증언은 언론에 의해 재난현장마다 등장하여 거짓말 인터뷰를 하는 관심병환자의 말로 전락했다. 그러나 '오'의 무고함을 증언해 줄 '경수'는 그 다음날 밤 잔뜩 겁에 질린 모습으로 돌아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이후 '경수'는 외출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물에 들어가

42)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문서고와 증인』, 앞의 책, 70면.

지도 않는다. ‘경수’는 증언을 거부하고 모든 연락을 끊는다. 스스로 사회적 인간 관계의 절연을 선택한 셈이다. 그 사이 ‘오’는 수감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경수’는 스스로 인간임을 거부하면서 자살을 시도한다. ‘경수’는 모든 인간관계에 무기력했고 스스로 사회적 삶을 정지시켰다. “동료를 저버리고 자신도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수인”⁴³⁾처럼 살았다. 그가 잠수부로서 확인한 세월호 구조현장의 진실에 대한 증언을 포기했을 때, 그는 “이름 없는 빠다귀”⁴⁴⁾로서 권력의 승리를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 그는 이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 살아있는 시체처럼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에는 반응하지만 타자의 상황에는 무관심밖에 표명할 줄 모르는 존재인 ‘무젤만’이 되어버렸다. 그의 ‘말하는 입’은 ‘침묵하는 입’에 점령당했다. 그는 스스로 “숨어버린 사람”이 되어 버렸다.⁴⁵⁾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법적 권리(생물학적 생명)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정치적 생명)를 포기해버린 이 역설적인 논리와 스스로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추락시켜 버린 침묵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와 ‘나’(아내)는 아직 그것이 어떤 결과를 재생산할지 모르고 있

43)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61면.

44) “켜켜이 쌓인 시체더미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무젤만)들은 인간에 대한 권력의 완승을 증거한다. 명목상 아직 살아있지만 그들은 이름 없는 빠다귀들이다.”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71면.

45) “우리 오하고 경수를 배에 태우고 바다에 나갔다지, 아마? 둘 다 둘에 매달아 물속으로 밀어버렸다가 죽기 직전에 끌어 올린 뒤에 오는 데려가고 경수는 보내줬다지, 그랬다지? 하고 나를 뻥히 올려다보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그들에게 미안했다. 그랬기에, 오는 잡혀갔지만 경수라도 돌려보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런 헐박을 받으면 누구나 숨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말에도 시선을 피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경수를 이성적으로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경수는 겁에 질려 숨어버린 사람들 중 하나다.” 이평재, 『숨어버린 사람들』, 44면.

었다. ‘경수’가 증언을 거부하고 스스로 ‘산송장’의 길을 선택했을 때 까지도 부부는 수동적 주체들의 머뭇거림이 결국 또 다른 연쇄적인 죽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들의 아들 ‘선우’가 이러한 권력의 작동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선우’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체계를 거부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현장실습에 투여되었다. 그곳에서 ‘선우’가 본 것은 함께 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에 대한 상사들의 성희롱과 그런 행태의 부당함을 표현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이었다. 거기에 더해 학교의 담임은 침묵을 종용했고, 엄마인 ‘나’도 다르지 않았다. 남편 ‘경수’의 침묵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경험했음에도, ‘엄마’라는 이름의 사회시스템의 말단 신경은 예의 ‘가만히 있으라’를 재반복했을 뿐이다.⁴⁶⁾ 그것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은 것은 아들의 죽음 이후였다. “명령에 복종하는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만들어진”(53면) 교육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이 모두 “에스맨”(33면)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아들 ‘선우’의 말을 도움의 요청으로 일찍이 감지하지 못한 ‘나’의 무감각이 아들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다.⁴⁷⁾ 마치 우리 사회가 수용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의 이기적 윤리가 세월호의 수많은 죽음을 불러온 것처럼 말이다.

46) “조금만 더 참고 다녀라.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잖아.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책임도 져야지. 이제 와서 어찌자는 거야. 엄마는 네가 누구보다 강했으면 좋겠어.” 이평재, 『숨어버린 사람들』, 52면.

47) “그러나 나는 선우로 인해 그 당시의 나의 생각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쓸어 덮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소리를 내며 영영 통곡을 하고, 거대한 힘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어야 하는 일이었다. 경수를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숨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나도 곁에서 도울 것이니 나가서 같이 버티자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다고 외쳤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았기에 나는 선우가 현장실습을 나간 지 49일째 되는 날, …… 내 아들 선우를 잃었다. 경수의 침묵이, 나의 묵인이 결국 선우의 목숨을 빼앗는 화살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이평재, 『숨어버린 사람들』, 46면.

이평재의 소설에서 국가는 신체를 구속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은 소속된 신체들의 유기적 관계를 조직해야 한다. 이때 신체 하나 하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 일사분란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정부라는 행정 권력의 형태를 띠고 개별적 존재들인 시민들에게 작동될 때, 또는 공적 조직의 보호와 목표를 위해 개별적 존재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 개별적 존재들은 ‘말하는 입’이 아니라 ‘침묵하는 입’을 갖게 된다. 이 침묵의 대가는 불이익과 차별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평재의 『숨어버린 사람들』은 가혹하게 드러내고 있다.

덧붙여 방민호의 『흡혈 사마귀』는 우리가 ‘침묵하는 입’이라는 수동적 주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 살아있는 시체로서 좀비와 같은 존재⁴⁸⁾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흡혈 사마귀’들은 언어 불능의 존재로서 똑같은 말만을 관습적으로 외치는 존재들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서 발견한 것도 서류와 명령으로 내려오는 언어 표현의 관습적 사용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민호가 보여주는 비-인간적 존재로서의 흡혈 사마귀는 언어 불능과 사유 불능이 야기하는 진실에의 침묵과 악의 생산성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48)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얼굴은 조금씩 달랐지만 말을 더듬는 것까지, 입 모양까지도 똑같아 보였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방민호, 『흡혈 사마귀』, 161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내가 죽어도 내 종족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방민호, 『흡혈 사마귀』, 174면.

5. 인종주의적 절멸에 대한 알레고리

앞서 살펴본 '말하는 입'이 거세된 '골렘'과 수동적 주체로서 '침묵하는 입'을 지닌 '무젤만'이라는 이름은 사회적 나눔의 장에서 빨셈의 대상으로 기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배제되고 바깥으로 내몰리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종주의적인 차별의 시선이 내재하고 있음을 김종광의 소설이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가는 초기 작품부터 단편 소설 하나에도 주요 인물 십수 명을 등장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작품의 내용은 단순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백 마리 미만의 가금 농가에 처분을 권고”했고, ‘충남 호구시’가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의 자기 도태를 지원”(67면)한다는 발표를 했다. 단순하게 말해 AI 예방을 위해 기르던 마을의 가금류들을 모두 살처분한다는 것이다. ‘호구시 푸른면사무소 산업팀장(75년생)’이 설명하는 살육의 과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다.⁴⁹⁾ 마치 유대인이라는 절멸의 대상에게 가해졌던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었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히 보인다.

“대형 비닐을 깔아요. 오리들을 비닐 위로 몰아넣어요. 그러고는 비닐을 덮는 거죠. 질식시켜 죽이는 겁니다. 옛날엔 땅에다 그냥 파묻었다는데, 요새는 사체를 10톤짜리 플라스틱 탱크에다 집어넣고 약품 섞어서 묻어요.” (김종광, 『가금을 처분하라고?』, 80면.)

49) 지그문트 바우만에 의하면 아우슈비츠의 절멸 과정에는 근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생학과 중심-주변의 위계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즉 모든 배제의 과정에는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근대성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성 옮김, 새물결, 2013.

“닭은 더위에 약해요. 양계사를 밀폐시키고 열풍기를 세계 틀어 놔요. 두세 시간이면 거의 갈사(暈死)해요. 설령 살아 있다 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김종광, 『가금을 처분하라고?』, 81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백호리 가금이 거의 전부 학살당했습니다. 애지중지 기르던 것을 어떻게 죽이냐고 버티던 분들도 할 수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중략)…도저히 스스로 못 죽이겠다는 분들 닭은 양계 할배가 가져가서 죽여 왔어요. 양계장에는 죽이는 기계가 따로 있대요. 집집마다 냉장고에 가금이 들어찼어요. 요리 해먹을 힘도 없고 해봤자 먹을 사람도 없다는 집도 많았어요. 그 닭들은 마을회관 냉장고로 들어갔지요. 노인회장님 말로는 “동네 늙은탱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을” 양이래요. (김종광, 『가금을 처분하라고?』, 85면.)

인용문에서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의 신체와 인종에 가한 “최종 해결책(Endloesung)”과 유사한 절멸 정책의 잔인함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전염병에 노출된 가금들은 인종주의적 절멸의 대상과 다르지 않다.⁵⁰⁾ 인종주의적 위생 논리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국가 장치 속에 각인되는 것은 생명정치권력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⁵¹⁾ 근대 국가에서 인종주의는 국가 기

50)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유대인에 대한 최초의 정책은 ‘격리’ 수용이었고, 그 다음 정책은 ‘이주’였다. 그러나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인 해결책은 ‘절멸’일 수밖에 없었다.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제4장~제6장 참고.)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그들에 대한 배제의 방식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끝은 결국 ‘절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김종광 소설에서 묘사하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의 풍경은 자신과 다른 종, 다른 계급,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피부색, 다른 성별 등에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이 도달하는 극단적이면서도 당연한 결말을 보여준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비극적 논리의 사례로 등장한 것이 인종주의적 차별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금류 살처분-최종해결책-인종주의적 차별’이라는 논리적 흐름에 기대어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능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종주의는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사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상을 파편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인구를 차별적으로 나누는 데 익숙하다. “만일 네가 살고 싶다면, 타인이 죽어야 한다”는 전쟁의 논리가 “열등하고 나쁜 인종의 죽음은 사회의 전반적인 삶을 건강하고 더 깨끗하게 만든다”⁵²⁾는 논리로 증강된다. 인구의 생명을 관리하는 생명정치권력이 반대로 생명의 절멸에 가담하는 모순적 상황은 근대의 생명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권력작동 방식은 주변화된 대상, 허약한 존재들의 죽음이 다른 인종 또는 다른 인구를 생물학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논리를 생산하면서 작동된다.

김종광의 소설에서 가금류들은 주변적 존재들, 처분 가능한 대상들, 위생학의 대상들이면서 공감의 가능성이 박탈된 존재로 기능한다. 그래서 가금류들은 살육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대상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체제 내에서 미지칭의 누군가 소수자나 주변인으로 대상화되었을 때, 해당 존재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 김종광의 소설이다. 김수미는 한국 주류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면서, 특정 보도들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성

51) 근대 생명관리권력이 생명을 '살게 하거나 혹은 죽게 내버려두는' 통치술을 구사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것의 변종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기 통치의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자만을 '살게 하고', 이 기술의 바깥에 있는 자를 '죽게 내버려둔다'. 신자유주의 통치에서 정치적 심급의 자율성은 파괴되고 경제적인 것에 예측된다.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기초 구성원들은 '기업'으로 환원되어 경쟁의 원리만이 남게 된다. 이 체제 아래서 현대의 주체는 시장 원리를 내면화하는 자기 관리의 주체가 된다. 하나의 통치술이 경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규칙화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3, 373면.

52)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동문선, 1998, 255면.

찰하고 우리가 상호 이해와 수용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연루된 이들 간의 차별적 범주화와 구분 짓기 등을 통해 이를 상당 정도 방해⁵³⁾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의 희생자,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금류들을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김중광의 소설은 살육되는 대상에 대한 동일시보다는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고통의 주체인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우리와 분리시킴으로써 무고한 존재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존재들에 대한 정동의 동일시와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는 작동방식을 가금류 살처분이라는 익숙하지만 잔인한 방식을 환기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비용의 지불대상이 되는 생명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의미화되지 못한다. 김중광의 소설에서 살처분 당하는 가금류들은 조류독감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사실은 가장 비효율적) 행정 처리의 대상이며, 광장에서 사십 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눈 맑은 남자’(『광장에 지다』, 101면)는 S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하청을 수주받길 원하는 공장주(골렘의 ‘아버지’)의 눈에는 S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정치적 장애물일 뿐이었다. ‘눈 맑은 남자’가 지닌 슬픔의 정서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저 ‘국격의 제고를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분류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킨다. 그들이 당면한 슬픔과 생명 상실의 현실은 사회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안에서 도구적으로 사고될 뿐이다.⁵⁴⁾

53) 김수미,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언론과사회』 23(4), 언론과 사회, 2015, 99면

54) 김수미, 앞의 책, 100면. 이러한 담론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생명은 그 자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다. 이들이

이런 사고가 일반화되면서 세월호는 사회적 삶의 안전 보장과 재난 예방을 담당하는 공적 주체가 소멸되고 그 책임이 사적 주체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55) 김종광의 소설에서 '면장'과 '산업팀장'의 대화 한 장면⁵⁶⁾은 이런 책임 전가와 회피를 풍자한다. 철새가 AI의 원인이라는 진단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상식적인 논리에도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철새가 원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과 해당 지역 관리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연한 무책임성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스스로 주체이기를 포기한 인간은 자율적인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외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타율적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나라가 주체성을 포기하고 나면 이런 나라 안에서는 마지막엔 누구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지 못할 정도로 타율성이 보편적이고도 전면적인 상황이 되기에 이른다. …(중략)… 그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타율성과 그에 따른 무책

당면한 고통과 생명 상실의 가능성이 사회의 선진화 달성에 대한 전망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도구적으로 해석될 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은 공감과 동일시의 대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가려진 민낯을 드러낸 결국 국격의 제고를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분류된다.

- 55) 공적 주체의 책임이 사적 주체에게 전가되는 사건으로 세월호를 진단하는 논문으로,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 『진보평론』 61호, 2014. 김종엽,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세월호 참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제와사회』 104호, 2014. 오창룡,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진보평론』 61호, 2014.
- 56) “철새가 거기만 있나요. 우리나라 웬만한 데는 다 철새도래지입니다. 면장님 말대로라면 철새 있는 데는 무조건 에이아이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좌빨 맞네.”/“무슨 옳은 소리만 하면 좌빨이라고 하세요?”/…… “철새 때문이라니까.”/“아니라니까요.”/“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정부 방침은 철새 때문이야. 철새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다 뒤집어써야 한다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지금 누구 책임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면에는 에이아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종광, 『가금을 처분하라고?』, 70-71면.

임성이 낳은 참사였다.⁵⁷⁾

김상봉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를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체들을 생산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수동적 주체로서 결정을 따르고 지시된 사항을 수행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권력의 가장 상층부에서 말단 권력까지 누구도 스스로를 책임의 주체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 사라진 빈자리에 인종주의적 절멸에 버금가는 폭력적 사고가 자라고 있었던 셈이고, 김종광의 소설은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이를 적절하게 폭로하고 있다.

6. 결론 : 문학이 막아선 길목

국가권력은 ‘먹는 입’에 대한 ‘말하는 입’의 우위, 즉 생물학적 신체에 대한 정치적 언어의 우위라는 위계를 결정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입은 호흡하고 말하고 빨고 뱉는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는 이 분리 불가능한 대상을 분리하고, 말을 독점함으로써 탄생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먹는 입’의 안전을 위해 ‘말하는 입’을 스스로 단아버림으로써, 정치적 언어를 국가권력이 독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말하는 입’(정치적 언어)-‘먹는 입’(생명의 자유)의 위계적 결정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시민 주체들의 자발적인 포기가 존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생명정치 권력의 메커니즘이

57) 김상봉은 홀로주체성(타인을 지배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만든 타율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주체성을 역설한다. 김상봉, 『네가 나라다 -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학』, 길, 2017, 13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먹는 입을 추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입을 탄생”⁵⁸⁾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지 모른다. ‘말하는 입’과의 부단한 분할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골렘’이나 ‘무젤만’과 같은 비-인간의 형상들을 탄생시켰다. 이웃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지연시키면서, 개인들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 국가 체계를 여전히 용인하면서, 언젠가 스스로가 부수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김상봉의 진단처럼 ‘홀로주체성’이 아니라 ‘서로주체성’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당연히 내 형제는 내 책임이다. 내 형제가 내 책임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지 않는 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내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내 형제의 안녕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내 형제의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갖는 순간, 그리고 카인이 그랬듯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내 책임을 저버리게 되고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의존성과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⁵⁹⁾

바우만의 말처럼 책임에는 이유를 묻는 순간, 우리는 홀로주체의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길이 무서운 이유를 『숨어버린 사람들』에 실린 작품들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책임을 거부하고 경제적 삶의 지배 논리를 지속하려는 자들이 ‘골렘’을 생산해 냈다.

58) 김항, 앞의 책, 27면.

59) 지그문트 바우만, 『방향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옮김, 봄아피, 2013, 121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존재로서 ‘골렘’은 ‘먹는 입’으로만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배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을 선택한 자들은 스스로 ‘무젤만’과 같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다. 정치적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했을 때, 뒤따르는 법률의 보복이 무서워서 기꺼이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김종광의 소설이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듯이 절멸의 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같이 음식을 ‘먹는 입’으로서 가족의 모습은 이 절멸의 길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기도 했다. 2014년 4월 16일에 대한 문학의 기억은 우리가 자칫 비-인간과 절멸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으로서 개인의 얼굴과 이야기를 또렷하게 새겨 놓음으로써 우리가 ‘비-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통로를 막아서고 있다. 이 지점이 사건 이후 문학이 수행하는 역할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도서

세월호추모문학 12인공동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15인 공동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심상대 외, 예옥, 2015.

2. 논문 및 단행본

4·16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작과비평, 2015.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작과비평사, 2016.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이병천.박기동.박태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강은교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 2014.
 권명아, 『사건 이후의 인간학 - 혼의 투쟁에 대하여』,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 『진보평론』 61호, 2014.
 김상봉, 『네가 나라다 -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학』, 길, 2017.
 김수미,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언론과사회』 23(4), 언론과 사회, 2015.
 김애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김종건,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 2014.
 김종엽,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세월호 참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제와사회』 104호, 2014.
 김향,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김현미, 『애도의 저자들, 준엄한 기록들』, 『여/성이론』 32, 도서출판 여이연, 2015.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 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사회』 2014

년 가을호.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노명우, 『역사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의 목시』,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신새별, 『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 『창작과비평』 168호, 창작과비평사, 2015.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 과정을 사례로』, 이재열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2017.

오창룡,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진보평론』 61호, 2014.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 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 2014년 겨울호.

이현정, 『인간성, 가족, 그리고 기억하는 행위에 관하여』,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인디고 서원, 『새로운 세대의 탄생』, 궁리출판, 2014.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최강민,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어문론집』71, 중앙어문학회, 2017.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꽃으로 돌아오라-세월호 3주기 추모 시집』, 푸른사상, 201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김교빈 외, 이파르, 2015.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동문선, 1998.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3.

수전 손택, 『문학은 자유이다』,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2004.

슬라보예 지젝, 『신체 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06.

아비샤이 마갈릿, 『품위있는 사회』, 신성림 옮김, 동녘, 2008.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문서고와 증인』,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지그문트 바우만,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옮김, 봄아피, 2013.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성 옮김, 새물결, 2013.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옮김, 한길사, 2006.



<Abstract>

Sewol ferry ‘eventment’
and Possibility of literature after ‘eventment’ II
—Focusing on 『Hidden people』—

Kim, Young-Sam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was an ‘eventment’ in which the nation abandoned the structure of the people, and as an ‘eventment’. The Sewol ferry brought back the whole life of the subjects familiar with the logic of neoliberal competition and development. Literature produced the story and reproduced the affection of sadness, and recorded the Sewol ferry ‘eventment’. The writers have shown the dynamics of language pouring ahead of literary formations as the state of the blind, and have since shifted to the literary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rd the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literature on the event, while following the process of literary writing after the Sewol ferry eventment. As part of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first memorial collection, 『Can we be happy?』, in the previous research. And follow-up research on 『Hidden people』. It focuses on the shapes of ‘non-human’ that the works summon.

The Golem of Bang Hyun-Hee's novel is the first non-human figure. A golem is nothing but an entity with only ‘body-life’, that is, a man as a speaking entity, but a zoe with only ‘eating mouth’ remaining. When Golem ate food in front of a bereaved family at

Gwanghwamun Square, he had already fallen into insensitivity to the pain of a neighboring hitter. Also, as a passive subject alive but not different from dead, only Muselman is the image of the second person. In this article, Muselman is a ‘silent mouth’, a silent prize in the pain of a neighboring hitter, leading himself to the threshold of the human person without escaping guilt and suicidal impulses. Lee reveals the inhuman form of these passive subjects in the most extreme way. As a passive subject possessing only the ‘talking mouth’, the Golem of the human body of life - human being of life, and the silent mouth, Muselman make is entered as a subject of subtraction in the normal calculation of society. These are being exterminated and exclusionary, proving the abnormality of the power of life. And if the state of exceptionality continues, racist discrimination and extermination will be at the end of the road. Kim Jong Kwang's novel was an experiment that showed that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body of a person when a person is targeted as a minority or a neighbor in the neoliberal system is remarkably low and the possibility that victims or families of Sewol ferry will be the target.

The state power was born by deciding the hierarchy of the superiority of the ‘talking mouth’ about ‘eating mouth’, the superiority of ‘political language’ for ‘freedom of life’. In addition to this, our society did not ban ‘eating mouth’, but gave birth to ‘mouth to eat’ itself. These ethical attitudes create subjects that are insensitive and unresponsive to the sorrows of their neighbors. The result is Golem as a machine that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that can be found in this novel, and only Muselman, who becomes a living body by choosing silence to avoid responsibility, and finally, the image of a nonhuman as he enters the path of extinction. In this way, the literature after the Sewol ferry eventment can diagnose that we can enter into the process



of non-human and extinction, but on the contrary, it shows the true meaning of the family as ‘mouth to eat’ The story is clearly marked. Literature is preventing us from going through the path of ‘inhumanity’

Key words: Sewol ferry, eventment, non-human, Golem, der Muselman, bio-politics, talking mouth, eating mouth, 『Hidden people』, story

투 고 일 : 2018년 5월 19일 심 사 일 : 2018년 5월 20일-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